



“일제시대 이후 맥이 끊기다시피 한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바로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50년 넘게 야생차밭에서 직접 차를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왜곡된 우리 차 문화의 문제점과 전통 차를 되살려내고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전통 차의 맥을 고집스럽게 이어오고 있는 순천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61·사진)이 <아무도 말하지 않은 한국 전통 차의 참모습-지허스님의 차>(한국전통차생차보존회·김영사 공동 출간, 1만 2천9백원)를 펴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에서 지허 스님은 우리 전통 차의 뿌리와 정신을 고스란히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녹차는 일본의 차입니다. 이걸 우리 전통 차인 양 착각하며 마시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것을 찾아 내리는 노력없이 차 문화에 상업성이 개입돼 빛은 결과입니다. 이 녹차가 사무라이 문화의 하나인 '다도'라는 허울을 쓰고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는 우려할 만 합니다.”

지허 스님은 오늘 우리 차 문화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마시는 녹차가 일본의 것이라면 대체 우리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전통 차는 차 나무와 제조방법 등에서부터 일본 중국의 차와는 매우 다릅니다. 한마디로 녹차는 찐 차, 중국 차는 발효차입니다. 우리 차는

# 전통차 뿌리·정신 찾아야죠

## 인터뷰 '아무도 말하지 않은 한국 전통차의 참모습'낸 지허스님

찾이를 구워서(दै어서) 만드는 뒤음차예요. 맛과 향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녹차는 쫄내·비린내를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습성에서 형성된 차이이고, 기쁨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향이 강한 차를 선호합니다. 우리 차는 강한 맛이나 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은은하고 깊은 향과 맛이 우리 차의 특징입니다.”

### 우리 차는 볶아 만드는 뒤음차

### 은은한 향·깊은 맛이 특징

### 순수 자생차 보존·보급 주력

### 시판되는 녹차·다도는 日本式

우리 다도에 대해서도 지허 스님은 명쾌하게 답한다.

“일부 차 모임이나 강좌 등에서 행해지는 다도라는 것은 일본식으로 우리 전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화장 짙게 하고, 한복 곱게 차려입고, 허리 굽혀 절하며 마시는 다도는 극적없는 물지각한 행태입니다. 초의선사는 차 마시는 일에 대해 말하기를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저장할 때 건조하게 하며, 마실 때 맑고 깨끗한 생각으로 마시라. 그러면 다도는 다 했느니라'고 했습니다. 굳이 우리 다도의 핵심을 말하려면 '누워서만 마시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지허 스님은 3년 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선암사 무우전에서 다담회를 열고 있다. 지허 스님이

직접 만든 차를 마시면서 '선다일미(禪茶一味) 다선 일여(茶禪一如)'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지허 스님은 2001년 11월 우리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국전통차생차보존회'를 결성했다. 영화 '만다라' 촬영 때 지허 스님과 차 한잔 나누는 인연으로 우리 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임권택 감독이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영화 '취화선'에서 천재화가 장승업 대역으로 출연했던 한국화가 김선두교수(중앙대 한국화학과), 디자이너 안상수씨 등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다담회에서 지허스님이 직접 이야기했던 우리 차에 대한 모든 것을 한국전통차생차보존회 회원들과 함께 만든 것이다.

이 책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녹차를 흔히 우전·세작·중작·대작 등 잎의 크기와 따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가격 또한 달리 매기는 풍토를 우리 전통 차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사신 대엽이 처음으로 차 씨를 가져와 심었다는 하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차 사배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역사적 근거를 들어 날림이 밝히고 있다. 특히 불교와 차와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16대째 선맥과 다매이 이어져오고 있는 선암사의 역사와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할 다매의 의지도 소개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차나무의 85%가 일본 종입니다. 10%가 변종 자생차이고, 순수 자생차는 5%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전라도 일대에 버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광고나 드라마에 나오는 잘 다듬어진 차밭이 아니라서, 일반인은 그것이 차밭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지요. 한국전통차생차보존회와 함께 순수 자생차를 보존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opia.com

보면서 인디언이 가졌던 훌륭한 문화와 위대한 꿈이 백인들의 침략과 정복에 의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종결돼 버렸는가를 이야기한 역사적인 증언이다.

탐욕에 가득찬 백인들이 거짓말과 무자비한 살육으로 어떻게 인디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파괴했으며, 마침내 운디드니에서 처참한 학살을 저질러 인디언의 역사를 끝나게 했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

검은 고라니는 위대한 추장이나 위대한 전사가 아니라 예언자였고, 병을 치료하는 주술사였기 때문에 이 책에는 인디언의 영적인 생활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또한 이 책에는 인디언의 눈에 비친 백인의 문화가 그들의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은자 기자

## 인디언 최후 항쟁의 육성 기록

로 기록된 인디언 멸망사에 대한 증언이자 현대문명, 특히 미국의 문명 세계에 던지는 준엄한 경고장이다.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시인 J.G.

장 웅맹스럽게 맨몸으로 저항했던 부족인데, 이 책의 주인공인 검은 고라니(Black Elk 1863~1950)는 그 부족의 예언자였으며 병자들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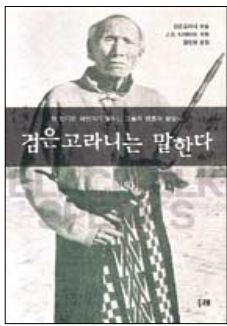
### 백인들의 무자비한 살륙·파괴

### 수우족 인디언 예언자 뼈아픈 증언

니이하트가 인디언 예언자 검은 고라니와 장시간의 인터뷰를 가진 뒤 쓴 인디언 자신의 육성에 의한 인디언 최후의 항쟁 기록이다.

오그랄라 수우족이라면 인디언들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가

를 담당했던 주술사였다. 이 책은 어린시절 부족의 구원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받았으나 끝내 그 계시를 이루지 못한 인디언 예언자의 뼈아픈 고백록이다. 철손이 다 된 나이에도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



### '검은 고라니는 말한다'

검은 고라니 구술 / J.G. 니이하트 지음  
두레 / 1만 2천8백원

<검은 고라니는 말한다>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 자신의 육성에



###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위르겐 하버마스 / 장은주 옮김  
나남출판 / 1만원



## 생명공학기술 활용은 어디까지?

만약 키를 크게 할 수 있고 몸매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약이나 의술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키나 몸매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기본 소식이 없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이나 등장하는 꿈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실제로 향유할 수 있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생명공학의 발달로 생명의 책으로 알려진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명공학이란 인간 생명 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공학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야심찬 학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적 운에 맡겨졌던 인간의 신체나 정신능력 심지어 수명까지도 인간의 손, 특히 과학자의 합리적인 손에 의해 설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생명공학 연구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유토피아를 꿈꾼다. 과학은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논리에 따라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둘씩 확장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과학 역시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 인류 전체에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물어야 한다. 이것

이 인문학의 역할이다. 최근 발간된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라는 하버마스의 책은 바로 이런 문제 의식에서 쓰여졌다. 생명공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물음을 던진다. 하나는 이런 생명공학기술을 어디까지 이용해도 좋은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술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이다. 하버마스는 착상전 유전자 검사와 배아연구를 실패로 들어 이 두 물음을 철학적으로 천착하고 있다. 이 책은 생명공학의 발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철학서로 문명 비평서라 말할 수 있다.

새해 들어 복제인간의 출생(?)으로 세계가 들끓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허용여부가 생명공학 육성과 맞물려 생명윤리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배아연구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쟁은 대부분 배아를 인간생명체로 간주할 수 있느냐의 물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이런 형이상학적 접근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관이 서로 다른 다원주의 세

계에 살고 있는데, 배아가 인간이나 아니냐의 물음은 세계관이나 종교와 같은 형이상학의 물음으로, 자유주의주의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형이상학에서 벗어나 인류의 보편윤리 관점에서 배아연구나 유전자 변형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물음을 다루고 있다.

배아가 인간이나 아니냐의 물음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배아로부터 발달한 존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 후 남은 잉여배아든 체세포핵이식술을 통해 만들어진 복제배아든, 배아 연구는 그 자체로 인간의 실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갖는 생식의 자유 및 개인의 권리를 들어 치료에 혁명적 전기를 마련해줄 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자 변형을 옹호하면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자유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이를 자유주의적 우생학이라고 부르면서 보편윤리에 근거하여 비판한다.

### 자유주의적 우생학 보편윤리로 비판

### 인간, 조작될 수 없는 자연발생적 존재

인류의 보편윤리에 따르면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이며, 목적적 존재이다. 이 목적적 존재의 생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버마스는 이를 조작 불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즉, 인간은 다른 인간에 의해서는 조작될 수 없는 자연발생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평등한 존재로서 언제나 목적적으로만 대우받아야 한다는 윤리원칙이 성립된다. 그런데 생명공학은 인간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자연으로서의 인간이 하나의 생산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지적이다. 즉, 인간은 다른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서 작품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어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손쉽게 읽혀지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공학이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물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특히 생명공학자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이제까지 알지 못한 새로운 윤리적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김상득/ 전북대 교수·윤리학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는 생명윤리의 문제, 그중에서도 최근의 생명공학 또는 유전공학의 발전이 제기하는 윤리적·도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최신작으로 2001년 6월 독일 미르부르크 대학에서의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